

전남 시군-지방의회 갈등도 넘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여수·광양·고흥 등 곳곳 충돌
지역사회 분열·현안차질·주민 피로감 등 부작용

지난 2018년 6월 출범한 민선 7기가 반 환점에 다다르면서 전남 일선 지자체와 지방의회간 갈등도 급증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지자체들과 지방의회간 충돌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주민 피로감과 현안차질, 지역분열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5일 전남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여수시와 시의회는 핵심 현안사업들을 두고 수개월째 맞서고 있다.

만항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대표적으로,

시의회는 주민 반발과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반대를, 여수시는 추진의지를 고수하면서 갈등만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최근 만항지구 개발의 지구지정을 승인하면서 갈등의 핵심이었던 중촌마을 지역을 제외했지만, 반대여론이 여전히 높아 사업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업은 여수시와 LH가 40만㎡에 3,000여세대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여수시와 시의회는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을 두고서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진모지구는 세트장 건립을 추

진 중인 영화사와 여수시가 무상임대 10년을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이견이 커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양시와 시의회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마찰을 내고 있다.

시의회는 광양시의 조직개편안 중 4·5급 2자리를 6급 이하 전환을 요구했지만, 시는 수정 의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을 부결했고, 당장 공무원노조에서 사기저하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양시는 상

반기 중 수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무안군도 조직개편을 두고 군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군의회는 집행부 조직개편안 중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 개발에 필요한 민원과 보전 관련 조직을 확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분회의에서 제동을 걸었고, 진통 끝에 지난해 말 수정 조례안이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행정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복수직렬 등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왔다.

고흥에서도 조직개편을 둔 집행부와 의회간 불협사운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흥군은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춰 '휴

양레저과' 시설을 요구했지만, 군의회는 선별리사업·우주랜드 등 대규모 휴양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반대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군의회가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 부결에 이어 또다시 행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군의회에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흥군은 송기군 군수가 민주평화당 소속인 반면, 군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으로 사안마다 대립을 거듭해 왔다.

해남에서는 일부 군의원이 읍·면·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 증액(1,000만→2,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군수 재량사업비를 두고 의회와 공직사회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강진에서도 수의계약이 부실하다는 군의회 문제제기에 강진군이 반박자료를 내고 맞대응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최성욱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구조에서 갈등관계 또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진통으로 볼 수 있다"면서 "양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존중과 이해가 뒤따를 때 소모적 분열과 대립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지난 3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상공회의소 주최로 '2020년 신년인사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 상공인들 "혁신성장·상생협력" 다짐

신년인사회...정창선 회장 "도철2호선 착공 등 발전 촉매제"

광주지역 상공인들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선남 전남매일 사장,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혁신성장과 상생협력으로 2020년대를 선도에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정창선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는 힘든 한해였지만, 광주·전남에는 희망적인 소식이 많았다"면서 "그중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착공, 성공적인 세계수업연수권대회 개최, 광주글로벌모터스 기공식 등은 지역발전에 큰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중심 단지 개발제

한구역 해제와 예산확보 소식은 광주가 우리나라 AI산업의 중추도시가 될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각종 규제철폐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노력해주고, 기업들도 대내외 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잘 관리한다면 성장과 부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미애 기자

'전두환 조사' 가능성 시사 촉각

5·18 진상조사위 출범... "40년 논란 종식해야"

지난 40년의 5·18민주화운동 진실을 찾아 나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3일 진행된 5·18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5·18 진상조사위 등에 따르면 송선대 위원장은 지난 3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참배단 앞에서 조사위원 9명을 대표해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는 "5월 영령에게 위원회 출범을 고하고 각오를 밝히게 때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40년간 분열적이고 소모적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오직 진실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신념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주저없이 진실 앞

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모여 참배 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전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5·18 진압작전 발표명령의 실질적 지휘체계와 발표명령체계를 조사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전씨와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전씨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질서 파괴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집단살해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국내법으로 어렵다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5·18행방불명자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다수 유골이 발굴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 터를 찾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김창준 vs 전갑수 '2파전'

첫 민선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압축됐다. ▶관련기사 14면

광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5일 이틀간 체육회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김창준 전 광주시체육회 고문단

장(76)과 전갑수 전 광주시 배구협회장(60) 등 2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전 광주시체육회 고문단장은 ▲안정적 재원조달 시스템 구축 ▲경쟁력 있는

전문체육 육성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광주체육인 복지 확대·소통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면으로 이어짐 /최진화 기자



김창준

전갑수

2020

전남매일 제2기 광주/전남

CEO경제아카데미

원우 모집

성공의 디딤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남매일 제2기 광주·전남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즈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원서접수 기간
2019. 12 ~ 2020. 02. 14

강의장소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강의시간
19:00 ~ 21:00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교육기간
2020년 3월 ~ 2020년 11월 (한달에 3번 강의)

M 전남매일 문의 및 접수처 : 전남매일 사업국 062) 720-1011, 1099